



Frankfurter Buchmesse 2004

2004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이하 도서전)이 10월 6일부터 11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다. 2005년 주빈국(Guest of Honor) 참가를 1년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2005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의 주빈국은 바로 한국' 임을 알리는 중요한 행사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맞춰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주빈국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주빈국 홍보관과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인 '직지'를 통해 한국 출판문화의 저력을 보여주고 <한국의 책 100>을 전시함으로써 2005년 주빈국 한국을 미리 경험하게 할 예정이다.

조직위는 홍보관 부스에 흰 가벽을 설치하고 가벽 중앙에 벽감을 마련하여 복원한 <직지 권상> 1판, <직지 권하> 5판 등 총 6판의 활자판을 일렬로 배치할 계획이다. 그 좌우 빈 공간에 주빈국 '한국으로의 초대와 직지에 대한 정보'를 담은 글을 부조처럼 넣게 된다. 또한 가벽 앞바닥에 <한국의 책 100>을 소개하는 글을 프린트하고 가벽 앞에 리플릿과 설문지를 배치할 수 있는 스탠드를 설치하게 된다.

주빈국 1차 공식 기자회견은 10월 7일 독일 현지 프레스센터 1층 포럼홀 Forumhall에서 도서전에 참가한 세계 기자들을 대상으로 열리게 된다. 홀거 에링 Holger Ehling 프랑크푸르트도서전 부위원장의 사회로 폴커 노이만 프랑크푸르트도서전 조직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박맹호 부위원장(현 위원장 대행)이 인사말을 겸해 한국 출판계 동향에 관해 소개한다. 이어 소설가 최윤 씨의 한국 문학 동향 발표, 황지우 총감독의 주빈국 조직 소개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프랑크푸르트도서전은 2003년 기준 102개국 6,614사가 참가한 세계 최대의 국제도서전으로서 80여 개국 1만2,000여 명의 기자들이 취재 경쟁을 벌인다. '人文 올림픽' 혹은 '문화 올림픽'으로 단순한 도서전시회 차원을 넘어선 세계 최대 규모의 문화행사다. 특히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빈국가 프로그램은 본 도서전의 하이라이트라 할 수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0여 명의 언론인들의 집중적인 보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월을 전후로 하여 독일 전역 및 이웃 유럽 국가에서 주빈국가와 관련한 각종 문화행사가 800~1,000개 개최되어 우리나라의 문화적 역량을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글** 취재 신동섭 기자

